

유우나 : --응, 이걸로 OK.

유우나 :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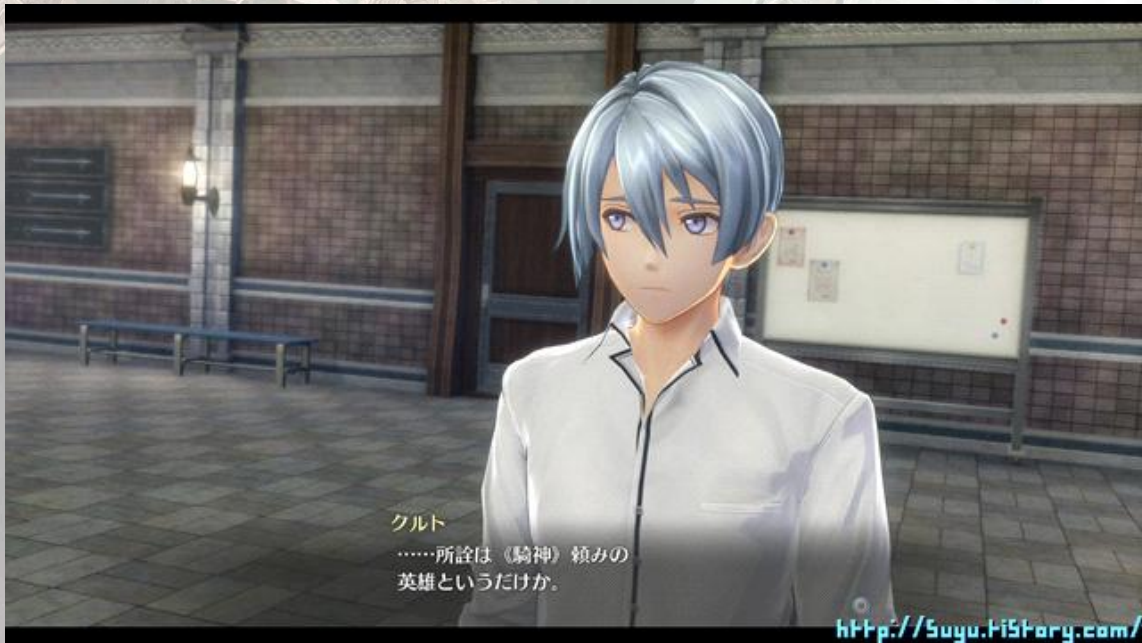
유우나 : 함께 등교를 하려고 일어나 보니 사라져 있고...



유우나 : 아빠, 엄마, 켄이랑 나도.

유우나 : 다녀올게요. --오늘도 힘낼게요.

유우나 : ... 아아, 정말! 제국인에겐 지지 않을 거야!



クルト

.....所詮は《騎神》頼みの英雄というだけか。

크루트 : 후우...

크루트 : --완성도는 나쁘지 않아. 남은 것은 실전뿐인가.

크루트 : ...그러고 보니 호흡이 거의 안정적이었어...

크루트 : <팔엽일도류>----

크루트 : 대단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형에 비교하면
소문 정도는 아닌 거 같군.

크루트 : ...결국 <기신>에 의지하는 영웅이었던 건가.



크루트 & 유우나 : 아...

크루트 & 유우나 : 좋은 아침, 저기--

크루트 : --좋은 아침, 유우나. 너도 등교하는 거야?

유우나 : 으, 응. 크루트도 기술 연습, 끝난 거야?

유우나 : 매일 아침, 열심히 하네.

크루트 : 뭐, 어렸을 때부터의 일과다보니 익숙해져있긴 하지만...



유우나 : ---아아, 정말! 그 때는 정말 미안했어!!

크루트 : 엷...
 유우나 : 그, 따귀를 때린 거 말야!
 유우나 :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항력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때리고...!
 유우나 : 그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고, 어른스럽지 못했다랄까...
 크루트 : 너는...
 크루트 :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마찬가지지.
 크루트 : ---헌데 그 후로 2주간, 계속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크루트 : 제국인을 싫어하는 너치곤 예의바르다고 할까, 기특하다 할까.
 유우나 : 그, 그다지 제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유우나 : 나라는 나라, 사람은 사람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생각하고...
 유우나 : ...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런 심한 소리도 했었고.
 크루트 : 아아...
 유우나 : 제국인이 사용하는 오래된 검술 따위보다 도움이 될 거예요!
 크루트 : 그다지 신경 안 썼어. 연습자체는 단순한 일과일 뿐이고.
 크루트 : ---그런 그렇고 크로스벨 사람들은 모두 너와 같은 느낌인 거야?
 유우나 : 에... 나 같다니?
 크루트 : 별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크루트 : 긍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고 묻는 거야.
 유우나 : 저기, 너말야!?
 크루트 :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아까 말했잖아.
 크루트 : 같은 클래스의 동료가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 다행이야.
 크루트 : (너무 사람이 좋아서)신뢰해도 괜찮은지는 제쳐두고 말야.
 유우나 : 으으... 정말 귀엽지 않다니까.
 유우나 : 후훗, 하지만 뭐. 세상 잘 부탁해.
 소녀의 목소리 : ---두 분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유우나 : 아, 알티나---!?
 유우나 : 어째서---? 벌써 등교했었던 거 아니었어!?
 알티나 : 아침 일찍 정시연락이 있었기에 유우나씨를 깨우지 않도록 자습실을 사용했습니다.
 알티나 : 설마 방을 나갈 때, 깨워버리고 말았나요?
 유우나 : 아, 아니. 꼭 잤는데...

유우나 : --것보다 정시연락은 뭐야, 정시연락은!



알티나 : 실례, 기밀사항이었네요.

크루트 : ... 뭐, 슬슬 시간이야.

크루트 : 같은 반이고 가끔은 같이 등교해볼까?

알티나 :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방해가 되는 게 아닌지?

알티나 : 방금 전의 상황을 보아 분석하건데 관계성의 진전이 있었던 듯하고요.

유우나 : 과, 관계성이라니... 별로 아무 일도 아니거든!!

크루트 : (근데 독특한 뉘앙스의 말투가 많은 아이로군...)



유우나 : 후우, 근데 리브스는 분위기가 있는 좋은 마을인 거 같아~

유우나 : 유유자적한 느낌인데도 센스가 좋은 가게도 잔뜩 있고.

크루트 : 응... 너무 시골스러워서 도시 같지 않은 마을이랄까.
 크루트 : 제도에서 그렇게는 멀지 않으니 딱 좋은 거리감일지도 모르겠군.
 알티나 : 이전엔 어떤 귀족의 영지였다는 것 같아요.
 알티나 : 그 귀족이 방치한 후엔 별장지가 건조되었지만
 제반의 사정 덕분에 사업이 중단--



알티나 : 그 남은 터가 제2분교로 이용되었다는 소문이.
 유우나 : 께, 께나 자세히 알고 있네.
 크루트 : 과연. 그래서 보기 좋게 저 규모의 분교가 만들어질 수가 있던 건가...



유우나 : 그건 그렇고 제국의 사관학교가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어.
 유우나 : 훈련이나 실습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수학이나 역사나 예술 수업까지...

유우나 : 범위나 레벨도 보통 고등학교이상인 거 아냐?
 크루트 : 문무양도(文武兩道)는 제국의 전통이니까.
 크루트 : 특히나 톨즈는 대체와 연관이 있는 전통적 명문이야.
 크루트 : 설령 분교라 하더라도 그 정신은 변함이 없을 테지.



알티나 : 오히려 올해부터는 본교 쪽이 크게 변했다는 것 같습니다만.
 크루트 : 그건...
 유우나 : ? 잘 모르겠지만 기합 넣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
 유우나 : 다른 반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힘내자!
 크루트 : ...뭐, 일단 시작한 이상 그래야지.
 크루트 : 그렇다곤 쳐도 수업의 대부분이 VIII반, IX반과 합동수업이지만 말야.
 알티나 : 별도로 받는 건 HR정도네요.
 유우나 : 으음, 그건 그럴네.
 유우나 : 인원수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선 VIII반은--
 남자아이의 목소리 : 하- 선발 엘리트들끼리 사이좋게 등교이신가.
 알티나 : 당신은--
 유우나 : 그러니까 분명 VIII반 전술과의...
 크루트 : ...좋은 아침. 우리들에게 무슨 불일이라도?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ㅋㅋ... 아니, 그다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단지, 소문 무성한 영웅의 반이란 게
 어떠한가, 흥미가 있어서 말이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VIII반 특무과--- 꽤나 충실한 매일을 보내고 있을 테지?
 알티나 : ...
 크루트 : 미안하지만 막 들어온 참이라 매일이 정신없는 것은 네 쪽이랑 마찬가지로.
 유우나 : 그러네. 그 사람의 반이라고해도 현재의 커리큘럼은 완전 동일하고.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그럼 어째서 일부러 애써 적은 인원으로 반을 만든 거지?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분명히 나이조차 다른 꼬맹이에
 꽤나 곱게 자란 도련님도 있군.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말 많은 곳에서 온 왈가닥 유학생도 있고 말야.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이런, 미안. "유학생"은 아니었던가?
 유우나 : ...웃...
 크루트 : 쓸데없는 도발은 그만해.
 크루트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단련장에서 상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ㅋㅋ, 좋군. 생각했던 것 이상 해볼 만하겠는 걸.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하지만 애석하게도, 볼 일이 있는 쪽은--



여자아이의 목소리 : 우후후, 사이들이 좋으신가봐요♥
유우나 : 아...
알티나 : 분명 IX반 주계과의.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흠?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후,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은 아침이네요.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하지만 그곳이 있으면 예비종이 울려버릴 텐데요?
크루트 : 그러네...
유우나 : ...계속 시비를 걸 셈이야?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ㅋㅋ… 별로 시비를 건 게 아닌데.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그럼 2, 4시간째 보자고.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후, 그럼. 1, 3, 4시간 때, 잘 부탁드립니다.
 유우나 : 하아… 뭐야, 저 금발은!!
 유우나 : 보아하니 불량스런 느낌이고 저런 녀석이 사관후보생이란 거야!?
 크루트 : 노골적으로 우리들 <VII반>에게 유감이 있는 듯 보이는데…
 크루트 : (아니… 우리들이기라기 보다--)
 유우나 : 이런, 큰일이다…!
 알티나 : 서두르지 않으면 HR에 늦을 것 같네요.
 크루트 : 응, 가자…!



린 : 후우… 이제야 2주가 지났나요.
 토와 : 후훗, 어느 반의 아이든 열심히 따라와 주고 있어.
 토와 : 톨즈 본교 이상의 스파르타이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린 : 네… 게다가 본교에는 없던 “교련”이나 “커리큘럼”도 있고요.
 린 : 제2분교---정부 측의 노림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토와 : 응… 하지만, 이 분교의 의의(意義)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토와 : 톨즈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날”도 있으니깐 말야.
 린 : 네-- 그것만은 안심했어요.
 린 : “부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방과 후에 전해줄 생각이예요.
 토와 : 응, 잘 부탁해!
 토와 : 그럼 “린 교관님” 오늘도 힘내서 가보도록 할까요!
 린 : 네--- “토와 교관님”도!



1장. 재회 ~ 백악의 옛 도시



1시간 수학

$$= v_0 e^{-\frac{k}{m}t} \cos \theta$$

$$= \left(v_0 \sin \theta + \frac{m}{k} g \right) e^{-\frac{k}{m}t} - \frac{m}{k} g$$

$$= \frac{m v_0}{k} \left(1 - e^{-\frac{k}{m}t} \right) \cos \theta$$

$$= \frac{m}{k} \left\{ \left(v_0 \sin \theta + \frac{m}{k} g \right) \left(1 - e^{-\frac{k}{m}t} \right) - g t \right\} + y_0$$

$$x = v_x \infty \quad y = v_y \infty$$

$$v_x \infty = \lim_{t \rightarrow \infty} v_x = 0$$

$$v_y \infty = \lim_{t \rightarrow \infty} v_y = -\frac{m}{k} g$$

$$x \infty = \lim_{t \rightarrow \infty} x = \frac{m}{k} v_0 \cos \theta$$

ミハイル教官
弾道計算などにも役立つので
応用問題を通じて身に付けるように。

<http://Sugu.fiStory.com/>

미하일 교관 : ---이게 그 공식이다.

미하일 교관 : 탄도계산 등에도 도움이 되니 응용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2시간 정치논리



토와 : 이게 GDP--- 국내총생산이라는 개념이야.

토와 : 덧붙이자면 에레보니아 제국의 작년 GDP는 전년도 대비 1.42배로...

3시간 야외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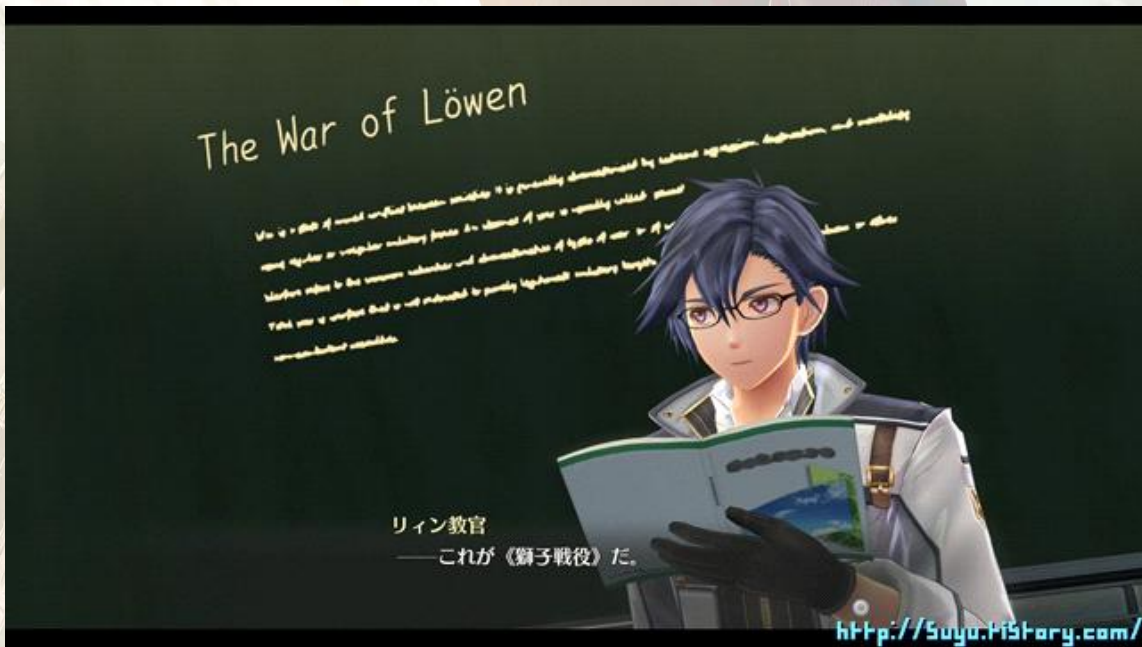


란돌프 : 오늘의 소화 메뉴는 “걷기”다. 그럴다곤 해도 만만치 않을 걸?

란돌프 : 무장한 상태로 자세를 갖추고 일사불란한 행군...

전술과 녀석들도 드러누울 정도니까 말야.

4시간 제국역사



린 교관 : ---이게 <사자전역>이야.
 린 교관 : 제국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터닝포인트...
 이 이후가 “근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린 교관 : 이 내전이 어떤 배경으로 일어나서 격화되어 갔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알티나 : ... (속속)
 유우나 : ...으음... (꽤나 알기 쉽게 얘기를 하네...)
 크루트 : 흠음...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
 금발의 여자아이 : ...흠흠. (공부가 되는 걸...)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하...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역시나 멋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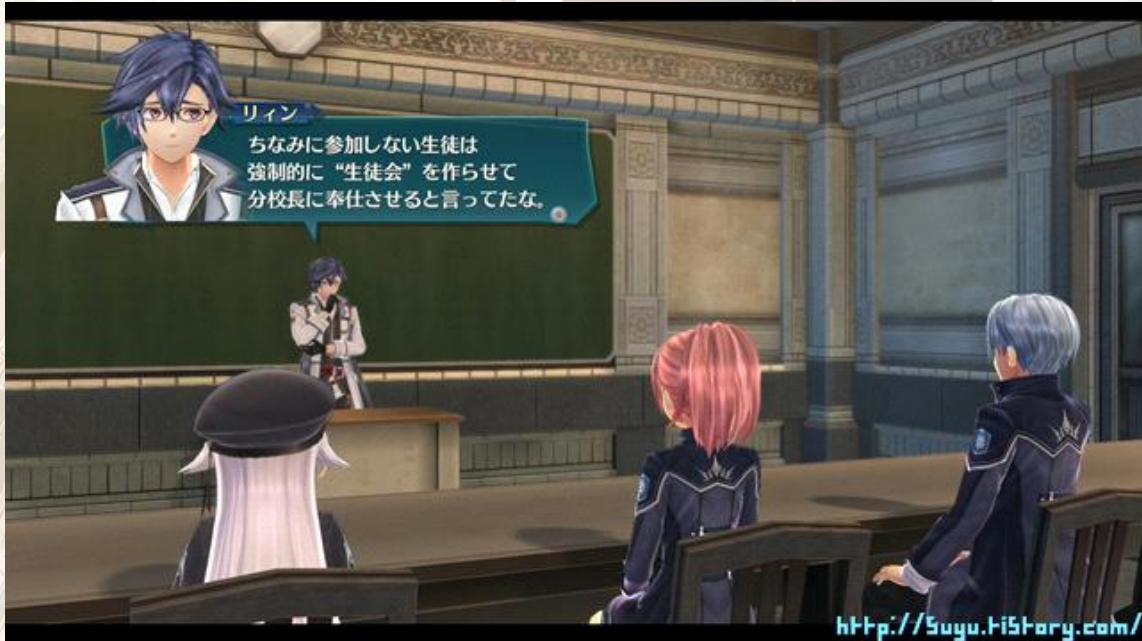


린 : ---오늘은 여기까지. 꽤나 피곤하지?
알티나 : ...나름대로요.
크루트 : 힘든 것은 처음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습디만...
유우나 : ...우리들이 익숙해지면 즉각 난이도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린 : 하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 걸.
린 : 단, 이 분교에 주어진 커리큘럼은 다양해.
린 : 이후도 힘든 매일이 계속되는 걸 각오해두는 편이 좋을 거야.
유우나 : 우으... 실내수업이 이렇게 많지만 않다면...
알티나 : ...체력소비가 상상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크루트 : 이런, 이런...



크루트 : ---하지만 내일은 [자유행동일]이 맞지요?
린 : 그래, 마침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우나 : 그거 입학안내에도 쓰여 있던 단어였지?
알티나 : 다시 말해 “휴일”인 듯합니다만 다른 건가요?
린 : [자유행동일]이란 것은 톨즈 사관 학원에 있어서선 “수업이 없는 자유한 날”을 말해.
린 : 자습해도 되고 훈련을 되고 자신의 취미에 열중해도 돼.
린 : 신청을 하면 외출허가도 나오니까 제도부근으로 놀러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유우나 : 헤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유롭네요.
유우나 : 제국의 사관학교란 건 융통성 없을 거 같으니 제한이 심한 휴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알티나 :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 기분도 듭니다만...
린 : 뭐, 그게 톨즈가 톨즈라 불릴 만한 이유이기도 해.
린 : ---단,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내일만은 1가지 조건이 붙을 거야.
린 : [부활동]을 결정할 것.
유우나 : 에...?
알티나 : [부활동]... 인가요?
크루트 : ...설립한지 얼마 안됐고 부활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린 : 분교장님의 지시라서 말이지. <톨즈>를 표방하는 이상, 부활동에 소속되는 건 필수라는 것 같아.
린 : 2명 이상 모이면 어떤 부활동도 신청을 허가하고 도구나

기재도 갖추어 준다는 모양이야.



린 : 덧붙이자면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강제로 “학생회”를 만들어서 분교장님에게 봉사하도록 할 거라고도 했던가.
알티나 : ... 아무래도 그건 저항감이 있네요.
유우나 : 것보다 그 박사님도 그걸고 너무 막무가내잖아...!
크루트 : 실질적으로, 강제라는 거군요... 내일 중으로 결정해라란 소리네요.
린 : 응, 오늘 방과 후에라도 당장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린 : 교관진(陣)도 상담을 들어줄 테니. 사양 말고 말을 걸어도 돼.
유우나 : 으...
크루트 : 후우, 알겠습니다.
알티나 : 오히려 지정을 해주면 수고가 덜 것 같은데요...
린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 다음 주 초의 “새로운 커리큘럼”말인데.
크루트 : ...!
유우나 : ...그리고 보니 그게 있었네요.
알티나 : <기갑병교련>말인가요.
린 : 그래, 이미 격납고에 연습기도 도착해있어.
린 : 전술과 학생들과 합동으로 기본조정을 배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린 : 그 후엔 주말에 실시되는 [특별 커리큘럼]에 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야.
알티나 : ...
유우나 : 특별 커리큘럼... 전부터 신경이 쓰였는데요.
크루트 :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물어도 소용없는 것이겠죠?
린 : 미안하지만 교과진도 상세한 내용은 통보받질 않아서 말야.
린 : 뭐, 기운을 북돋는 의미에서도 내일은 꼭 쉬었으면 해.
린 : --HR은 이상이야. 알티나, 호령을 부탁해.
알티나 : 네.
알티나 : 기립--- 경례.

본교사 1층 교관실.

미하일 소령 : 자, 그럼--- 내일은 “자유행동일”인데.
미하일 소령 : 우리들 교관진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보내라는 분교장님의 전언이야.
미하일 소령 : 하지만, 오후 3시부터는 브리핑이 참가해주었으면 해.

린 : 브리핑, 말인가요?

란돌프 : 이거 참, 군대 같은 용어가 튀어나왔구먼.

토와 교관 : 그건 설마---



미하일 소령 : 그래, 다음 주말에 있을 [특별 커리큘럼]에 관해서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지.

린 : ...그렇군요.

란돌프 : 애타게 하는군. 아무래도 기갑병교련 이상으로 큰일인 얘기 같지만.

토와 : ...전교 학생이 참가하는 커리큘럼이었죠?

미하일 소령 : 그래, VII반부터 IX반까지. 교관진도 포함해서 예외는 없어.

미하일 소령 : 내일 오후 3시, 본교사의 군전략회의실에 집합하도록.
연락사항은 이상이야.



란돌프 : 나 참, 역시나 천하의 철도헌병대랄까.
 란돌프 : 들고 있자하니 좋지 않은 생각밖엔 떠오르지 않는 걸.
 토와 교관 : 으, 으음...
 린 : ...동감이네요.
 린 : 그 소형요새도 그렇고 기갑병에다, 학교 내의 화물노선의 확보까지---
 린 : 이 분교의 설비는 단순한 [버릴 말(捨石)]이라고 하기엔 너무 충실한 느낌이 드네요.
 토와 교관 : 응... 그러네.
 토와 교관 : 본교도 대폭 개수되었다는 거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 미라(돈)가 들었을 거 같달까...
 토와 교관 : 문제는 어디에서 그 예산이 나오는가 하는 거야.
 란돌프 : 그렇다는 건 그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제2분교에 바라고 있다, 라는 거군.
 란돌프 : 아- 싫다, 싫어. 너무 수상쩍어서 당장이라도 전선에서 이탈하고 싶어지는 군.
 린 : 란돌프 교관님...
 토와 교관 : 저기, 저희들은 막지는 않을 거예요...
 란돌프 : 농담이야, 농담. 갑자기 집어치우거나 하진 않는다고.
 란돌프 : 이래저래도 전술과 녀석들도 쥐어짜볼만한 보람이 있는 녀석들뿐이고.
 란돌프 : 그럼, 먼저 나갈게.
 란돌프 : 모쪼록 우리들이 꼬맹이들의 상담을 들어주도록 하자구.
 린 : 네, 알겠습니다.
 토와 교관 : 수고하셨습니다-.
 린 : ...역시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토와 교관 : 그,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토와 교관 : 얘기해보면 스스로없고 학생도 잘 챙기는 면인 모양이고.
 린 : 네, 교관으로서의 걸맞은 인재라고 생각해요.



<http://sugu.history.com/>

린 : 단지... 1년 정도 전 저는 저 사람의 "동료"와 완전 대립을 해버렸어요.
 린 : 그런 의미로는 저를 좋게는 생각하지 않을 터겠죠.
 린 :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예요.
 토와 교관 : 린...
 린 : ---아무튼 오늘은 학생들의 상태를 둘러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린 : 갑자기 부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토와 교관 : ...응, 그러네.
 토와 교관 : 반복이 되겠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자!



- 린 : (자 그럼---방과후인가.)
- 린 : (학생 때랑은 달라서 조금 신선함이 느껴지는 걸.)
- 린 : (아직 익숙하지 않고 분교 내를 전체적으로 둘러볼까.)
- 린 : (VII반이나 그 외의 반 학생들에게도 새삼 얘기를 하고...)
- 린 : (수업이나 부활동 건으로 곤란해 하는 게 있으면 상담을 들어주도록 하자.)
- 린 : (그리고... 분교장님이나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는 외부 스태프에게도 말을 걸어두도록 할까.)

[인물 노트]가 해금되었습니다.

인물노트에서는 특정 캐릭터의 프로필, 보충설명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특정 회화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입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메뉴]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버튼을 눌러 이동메뉴를 사용하면 한번 들렀던 적이 있던 장소에 순식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메뉴에서 키(중요)이벤트나 동료들이 있는 장소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서보관실에선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용어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천도서 코너에는 매 챕터마다 각종 책이 추가되어지므로 흥미가 있는 분은 체크해보세요. 또한 일부 서적은 한번 내용을 확인 하는 것으로 서적 노트(書物ノート)에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언제든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제2분교, 4월 15일 -



Check Point !!

행동 네비게이션 : 교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본다.(校内を一通り回る)

기본 진행 흐름은 필수 이벤트를 회수하면 바로 본교에서 리브스 시내로 이동을 할 수 있다.

필수 이벤트는 아래의 7가지.

- ※ 본교사 1층(本校舎 1F) 본교장실에서 오렐리아와 대화.
- ※ 본교사 2층(本校舎 2F)층 복도에 있는 도와와 대화.
- ※ 본교사 옥상(本校舎屋上) 벤치에 있는 알티나와 대화.
- ※ 연무장(練武場)에 가서 크루트와 대화.
- ※ 식당(食堂)에서 유우나와 대화.
- ※ 식당(食堂)에서 카운터에 있는 지나(ジーナ)와 대화.
요리 노트 입수와 제국시보 제1호(帝国時報・第1号)구입.
포테토 샐러드(ごろごろポテトサラダ) 레시피 입수.
- ※ 야외 격납고(格納庫)에 티타와 대화.
또한 오브먼트 종점 메뉴에서 퀘츠를 한 개 이상을 생성.

위 필수 이벤트를 보면 일단 본교에서 나가 리브스 시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필수 이벤트 외에도 각종 서브 이벤트가 있으나 볼지 안 볼지는 선택의 자유.

공략의 진행은 기본 필수 위주 순으로.
서브 이벤트 등은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체크.

(이후 필수이벤트에는 ※ 표시와 함께 굵은 강조선 넣도록 함.
메인이벤트만 진행 하실 분은 참조하시길.)

※ 본교사 1층, 본교장실에 있는 오렐리아와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오늘의 일도 별다른 문제없이 끝마쳤군.

오렐리아 분교장 : 교관직도 어느 정도 물이 오른 모양이군, 슈바르쳐?
 린 : 아니요, 오히려 날마다 미숙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린 :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끊임없이 정진해나가야 할 테죠.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겸손하군.
 오렐리아 분교장 : 흠, 뭔가 얘기하고 싶은 표정이군.
 사양할 필요는 없는데?
 린 : 그게...지금에 와서 공공이 생각해봐도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죠.
 린 : <황금 나찰>으로 유명한 당신이 지금 눈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यो.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이상한가?
 오렐리아 분교장 : “버리는 말” 따위의 입장을
 이 내가 양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렐리아 분교장 : ...



오렐리아 분교장 : ㅋㅋ...애당초 나 자신은 1년 반전의 내전에서의 “패배”로
 힘의 쇠약을 느끼던 참이었어.
 오렐리아 분교장 : --작년 가을의 “역할”을 어떻게든 완수하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린 : <북방 전역>...
 오렐리아 분교장 : 제국 북방의 <노잔브리아 자치주(自治州)>---
 오렐리아 분교장 : 그 땅을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엽병단,
 <북의 엽병>을 토벌하기 위한 전역.
 오렐리아 분교장 : 너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 현지에 갔었던랬지.
 린 : ...네, 저와 발리마르는 전열에 참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린 : 그건 도저히 “싸움”이라고 부를 만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린 : 당신과 위레스 준장(准將)---영방군(領邦軍) 최고의 장군들이 지휘하는
 최신에 “기갑병사단”
 린 : 주력전차부대와 연계한 용서가 없는 전력의 투입되어
 린 : ... 노잔브리아는 크로스벨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였죠.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다소 틀리군.
 오렐리아 분교장 : “맞이하게 만든”거야--- **재상의 의도대로** 말이지.
 린 : 으...
 오렐리아 분교장 : 어찌됐건 그 싸움에서 받은 무훈(武勳)은 나에게 있어서선
 좋은 매듭거리가 되었어.
 오렐리아 분교장 : 내전의 책임으로 해체되어가던 각지의 영방군도

어떻게든 존속시킬 수가 있었고.



오렐리아 분교장 : 백작가의 당주인 이상, 후임은 워레스에게 맡기고 군을 전역해서 신랑이라도 찾아볼까 했었지만.

오렐리아 분교장 : ㅋㅋ, 그러던 참에 우연히 전하에게 이곳의 분교장을 타진 받다니 운명이란 건 알 수가 없는 것이더군.

린 : (우연히, 인가...)

오렐리아 분교장 : ㅋㅋ, 뭐, 이 얘기는 그만 됐어--

오렐리아 분교장 : 아무튼 내일은 분교 처음의 자유행동일이다.

오렐리아 분교장 : 꼭 쉬면서 “부활동”에 관해 학생들에게도 배려를 해주도록 해.

린 :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렐리아 분교장 : 아아, 언급했듯이 내일까지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 관해선

“학생회”에 강제 가입시킬 셈이다.

오렐리아 분교장 : 너무 인원수가 많으면 너에게 고문역할을 시킬 지도 모르겠군.

린 : 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다시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그리고 보니 너는 학생시절 허셀의 밑에서 학생회의
도우미를 했다던 거 같더군.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그럼 학생회의 고문이라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겠는 걸?

린 : 아니, 그 때와는 상황이 틀리므로...

린 : 학생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부활동을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뭐 내일은 모쪼록 인사(人事)에 힘쓰도록.

오렐리아 분교장 : 학생회 고문으로서 나에게 봉사하고 싶지 않다면 말야.



Side Event !!

※ 본교사 1층(本校舎 1F)장서실(蔵書室)에 있는
타치아나(タチアナ)와 대화를 하면 인물 노트 갱신.

타치아나 : 고금동서의 역사서에 소설, 그리고 아동용 동화까지...

타치아나 : 후후 역시 이곳의 소장서적의 양은 충실하네요.

린 : 음, 뭔가 찾고 있는 거라도?

타치아나 : 으아...으와아아△@★※!?

린 : 저기...미안해. 뒤에서 갑자기 말을 건네서.

타치아나 : 리, 린 교관님...아니요... 저야말로, 죄, 죄송해요.

린 : 조사할 거...라기 보단 탐색이라는 느낌인가.
린 : 너는 책을 좋아하는 모양이지?



타치아나 : 아, 네...아버지가 독서가로 그 영향을 받아다랄까...
타치아나 : 장르에 구애 없이 각각의 세계감에 빠져드는 것이 좋으려나...
타치아나 : 무, 무서운 것만은 안 좋아하지만요.
린 : 하하, 그렇군.
린 : 덧붙이자면 나도 역사학을 가르치는 몸이야.
린 : 역사서에 그 나름대로 자세한 편이니 원가 물어 볼게 있으면 맘 편히 얘기해줄래?
타치아나 : 아, 네... 그렇게요!



Side Event !!

본교사 1층 양호실 옆 저장고(ストリージ)에 있는 미하일 소령과 대화.



미하일 소령 : 후우, 이걸로 됐군…
 린 : 미하일 소령님… 뭔가 새로운 화물이라도 들어온 건가요?
 미하일 소령 : 그래, 오렐리아 분교장님의 영지에서
 갖가지 취미의 도구들이 막 도착했거든.
 미하일 소령 : 학생들의 부활동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자신의 사유물을 제공해주셨다.
 린 : 오렐리아 분교장님이…
 미하일 소령 : ---이런 물품만 아니라 분교장님의 사비로
 기증받은 물건은 결코 적지 않은 편이야.
 미하일 소령 : 이 학원에는 제국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편이긴 하지만…
 미하일 소령 : 어디까지나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것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하일 소령 : …반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제공받아도 곤란할 뿐인데…
 미하일 소령 : 그<황금 나찰>에게 그런 소릴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말이지.
 미하일 소령 :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린 : 과, 과연…
 린 : (그것 그렇고 TMP의 미하일 소령인가…)
 린 : (정부의 의향을 따르고 있는 것일 텐데도…
 꽤나 성실한 사람인걸.)



린 : (당연히 “그 사람”과 동료라는 걸 텐데…
 뭐 생각해도 소용이 없나.)

※ 본교사 2층 VII반 옆의 전산실 앞에 있는 토와와 대화.

토와 교관 : (속속속) 여기는 OK…
 린 : 선배님, 뭐하고 계신가요?
 토와 교관 : 응, 잠시 학교 내의 비품 등등의 정기 체크를 하고 있어.
 토와 교관 : 사무직원도 없으니까 주말에 한꺼번에 해두는 편이야.
 린 : 서, 선배님 혼자서 말인가요…?(이 사람은 여전하다고나 할까…)
 린 : --죄송해요, 알아채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도와 드릴게요.
 토와 교관 : 아하하, 괜찮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는 끝났고.
 토와 교관 : 그건 그렇고… 비품은 충분할 정도인데도 역시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야.

린 : 그러네요... 지금은 의무실조차 정해진 담당이 없으니까요.
 린 : 이후엔 기갑병 교련이나 <특별 커리큘럼>도 있을 테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토와 교관 : 뭐, 당분간 교대로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을 거 같아.
 토와 교관 : 응급처치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린 : 후우...저기,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린 :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사양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토와 교관 : 에헤헤... 고마워, 린.
 토와 교관 : 아, 그럼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토와 교관 : 이거인데.



- 사관 학원 학생 수첩 -

린 : 이걸... VII반의 학생수첩이네요!
 토와 교관 : 응, 늦긴 했지만 오늘 마침 완성이 되어서 말야.
 토와 교관 : 괜찮다면 린이 건네줄래?
 린 : 네, 그야 물론이죠.
 린 : 그걸 그렇게 어쩌서 VII반만 늦어지게 된 거죠?
 린 : 분명 수첩의 편집과 발주는 미하일 소령님이 진행했을 터인데요.
 토와 교관 : 응, 소령님에게 물어보았는데...
 토와 교관 : 이번의 [특별 커리큘럼]은 반마다 다른 내용으로 되는 모양이야.
 토와 교관 : 각종 설명이나 일지의 구성이 미묘하게 달라서 별도로 발주하다보니
 인수가 적은 VII반은 아무래도 나중에 되어버린 모양이야.
 린 : 과연... 아무튼 분명히 전해 받았습시다.
 린 : ([특별 커리큘럼]인가... 정말 어떤 내용인 거지?)

- 학생 수첩 3권을 받았다 -

토와 교관 : 에헤헤, 미안해. 린도 바쁠 텐데.
 린 : 아니요, 담임인 제가 학생들에게 건네는 게 타당하죠.
 린 : ...하하, 학생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토와 교관 : 후훗... 왠지 그림네.
 토와 교관 : 그럼, 린. 수첩 잘 부탁해.

린 : 네, 맡겨만 주세요.
린 : (세 사람 모두, 아직 학교 안에 남았으면 좋을 텐데...)
린 : (잠시 찾아나서 볼까...?)



Side Event !!

본교사 2층 IX반 교실에 있는 파블로와 카이리와 대화.
대화 후 파블로, 카이리의 인물노트 갱신.



파블로 : 뭐, 뭐시여!?
파블로 : 즉, 카이리는 철도에 흥미가 없단 말이여!?
카이리 : 저기,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파블로 : 그럼 함께 하자고, [철도부]!
파블로 : 철도를 접하고 철도를 타며 철도의 사진을 찍는
그런 매력에 대해 얘기하는---
파블로 : 이런 최고의 부활동이 또 어디에 있난 말여!?
카이리 : 파, 파블로씨에겐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린 : (분명... 두사람 다 주계과의 학생이었나.)
카이리 : 아, 린 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파블로 : 아, 마침 좋구먼. 교관님도 얘기 좀 해주셔유!
파블로 : 제국남아(男兒)라면 철도부 뿐이라고!
카이리 : 제국남아라면... 그, 그거, 정말인가요...?
린 :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파블로와 다시 대화.



파블로 : 카이리는 아직 눈을 못 뜬 거 뿐이랑께!
 파블로 : 이대로 내 얘기를 계속 들으면 분명 철도의 매력에---
 린 : (...그건 세뇌가 아닐까?)

카이리와 다시 대화.



카이리 : 제국남아라면 철도부... 정말로 그런가요?
 카이리 :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훌륭한 제국남 아니까요!



Side Event !!

본교사 2층 VIII반 교실에 있는 웨인과 대화.
 웨인의 인물 노트 갱신.

린 : 너는 전술과의...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는 건가?
 웨인 : 아, 슈바르처 교관님.
 웨인 : 네, 저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는 성격이라서 말입니다.

린 : 과연. 좋은 마음가짐이네.

린 : 덧붙이자면 부활동 선택 쪽은 괜찮은 거야?

웨인 : 그건 뭐, 문제없이.



웨인 : 실은 수영이 취약한 편이라 수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린 : 취약하기에 오히려 도전, 인가...

린 : 감탄했어. 그 나이에 대단한 마음가짐인 걸.

웨인 : 천만에요, 뭣보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이니깐요.

웨인 : 하지만 듣자하니 본교에선 올해부터 자유행동일이 폐지되고 게다가 부활동도 사라졌다던가 하던데.

웨인 : 우리들도 본교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가 다소 불안도 느껴집니다만...

린 : ...

린 : 뭐랄까, 그 문제의 시비여부는 제쳐두고 본교에는 본교의 방침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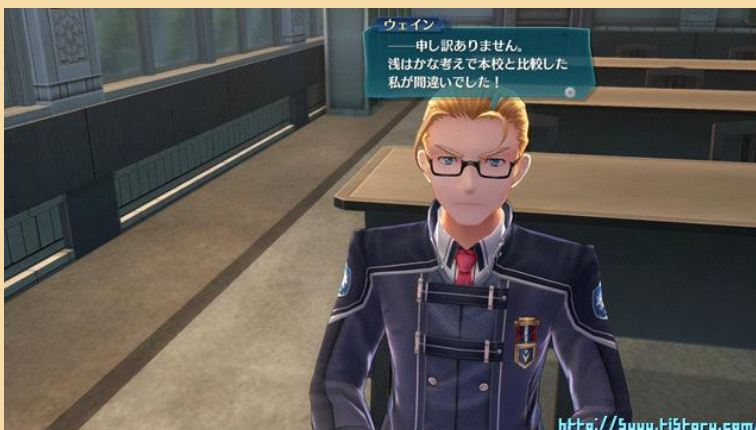
린 : 지금을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가 분명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린 : 그러니까 모조록 오렐리아 본교장님과 우리들 교관들을 믿어주었으면 해.

웨인 : 슈바르처 교관님...

웨인 : 예스, 씨!

다시 대화.



웨인 : 본교가 아니라 분교이기에 얻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웨인 : ---죄송합니다. 알팍한 소견으로 본교와
 비교한 제가 틀렸습니다!

※ 본교사 옥상의 벤치에 앉아 있는 알티나와 대화.



린 : 알티나? 이런 곳에 있었군.
 린 : 항상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돌아가는 듯 하던데… 혼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알티나 : 아뇨… 잠시 검토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알티나 : 내일 자유행동일에 대한 “미션”에 관해서.
 린 : 에?
 린 : 그건 설마… “부활동 결정”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알티나 : …(끄덕)
 알티나 : 자료실의 서적 등도 참고를 해보았습니다만…
 알티나 : 그저 계속해서 선택지가 늘어나기만 할 뿐이랄까.
 알티나 : 린 교관님, 저는 뭐를 선택하면 될까요?
 린 : …미안하지만, 알티나. 그것에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
 린 : 나에게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알티나 : …? 제가…?
 린 : 뭐, 이걸 숙제로 해두자. 시간은 내일 하루 끝나기 전까지 있으니.
 린 :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도 좋고 나도 물론 상담엔 응할 생각이야.
 린 :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신,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길 바라.
 알티나 : ---크라우=솔라스.
 알티나 : …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시라면.
 알티나 :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린 : 아, 알티나!? 잠…
 린 : …설마 지금 것은 조금 빠진 건가?
 린 : 이런,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좋겠는데.
 린 : 이런, 학생수첩도 건네는 걸 깜빡했네…
 린 : 뭐, 됐어. 나도 내려가 볼까.

※ 클럽하우스 지하의 단련장에 다가가면 이벤트 발생.

린 : (자물쇠가 열려있어... 누군가 있는 건가?)

크루트 : 흠...!

크루트 : 후우...

린 : ---훌륭하군.



크루트 : 슈바르처 교관님...? 어째서 여기에?

린 : 잠시 지나가던 참이야.

린 : 반달의 쌍검— 좋은 기술을 보게 됐는걸.

크루트 : ...아니요, 아버지나 형의 검에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크루트 : 아직 한참 정진해야할 정도예요.

린 : 기숙사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방과 후까지일 줄이야. 정말 열심히군.

린 : 부활동을 뭘 할지 검토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크루트는 벌써 뭘 할지 정한 거야?

크루트 : 아니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루트 :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문제도 아니잖습니까.

크루트 : ...개인적으로는 부활동 자체가 약간은 거려지는 편입니다만.

린 : 에?

크루트 : 부활동으로 “검”을 하는 건 취지와는 다른 느낌도 들고.

크루트 : 그렇다고 부활동에 전념하면 필연적으로 검을 잡을 시간이 줄고...

크루트 : 가급적 구속받지 않고 체력을 소모시키지 않는

부활동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린 : ...하하, 그렇군. 꽤나 달관한 성격이군. 너는.

린 : 하지만 부활에 빠져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린 : 네 “검술”에 역시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말야.

크루트 : ...무슨 의미죠?

린 : 그랬던 경우의 지인을 알고 있는 것뿐이야.

린 : “그녀”도 부활동을 통해서 “검”에 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어.

린 : 모처럼의 기회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을 선택해줬으면 해.

린 : 물론 강제할 생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 줄 테니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
 크루트 : 일단, 조언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크루트 : 저기, 조금 더 계속하고 싶으므로...
 린 : 알았어, 방해를 해서 미안하군.
 린 : (학생수첩은 기숙사에 돌아가서라도 전해줄까...)



Side Event !!

클럽하우스 단련장 옆의 사격연습실에 있는 레오노라, 마야와 대화.
 레오노라, 마야의 인물노트 갱신.



레오노라 : 하하, 역시 마야네.
 레오노라 : 잘도 저런 작은 표적을 끊임없이 맞추다니.
 마야 : 아니요... 아직 한창은 멀었어요.
 마야 : 그리 말하자면 레오 언니의 성명능력 쪽이 더 대단한 게 아닌지.
 레오노라 : 뭐, 나와 마야는 애당초 역할이 다르니까.
 린 : (그녀들은 분명 양쪽 다 전술과였었지.)
 린 : 음, 두 사람 모두 열심히네.
 마야 : 어라, 린 교관님도 훈련이신가요?
 레오노라 : 그렇다기보다 순찰중 아냐?
 린 : 맞아, 누가 방을 쓰고 있는지 신경 쓰여서 말야.
 린 : 덧붙여서 두 사람 모두, 뭔가 곤란한 일 같은 건 없는 모양이지?
 린 : 나라도 괜찮다면 상담을 해주겠어.
 레오노라 : 헤에, 그건 고마운 소리네.
 레오노라 :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괜찮을려나?
 마야 : 그러네요. 나중에 일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린 : 하하, 알았어.

레오노라와 대화.



레오노라 : 하지만 허가만 받으면 최신에 설비와 무기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대니.
레오노라 : 하하, 여긴 보면 볼수록 좋은 학교인 걸.

마야와 대화.



마야 : 본교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교의 합격통지가
도착했을 때는 낙담을 했지만...
마야 : 실제로 통학하는 지금에선 확실히 이곳은
좋은 학교라고 느끼고 있어요.
마야 : 버리는 말 취급 해보라지요... 정진하면 될 뿐입니다.



Side Event !!

클럽 하우스에 있는 샌디(サンディ)와 대화.
샌디의 인물 노트 갱신.

샌디 : 근대적인 건물에 각종시설...

샌디 : 이게 도시... 내가 살던 농촌과는 전혀 다르네.
 샌디 : 아, 린 교관님--
 샌디 : 멍하니 서 있어서 죄송해요.
 린 : 하하, 신경 쓰지 마.
 린 : 그리고 보니 넌... 주계과의 샌디였던가.
 린 : 분명 출신은, 그...



샌디 : ---네, 제국 변경(邊境)에 있는 알스터에서 왔어요.
 샌디 : 그--내전 때에는 마을을 구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린 : 하하... 그렇게까지 말하니 아무래도 속쓰러운 걸.
 린 : (알스터... 내전 당시에 오리발트 황자님으로 부터의 의뢰로 방문을 했었던가.)
 린 : (갈 곳을 잃은 열병무리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린 : (여러 사정으로 토발씨나 적이었던 알티나에게도 도움을 받았더랬지.)
 린 : 음...하지만 그 자리에 네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신기하군.
 샌디 : 네, 저도 그래요.
 샌디 : VII반 여러분은 정말 제 동경의 대상으로...
 샌디 : 린 교관님,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린 : 응, 물론이지.
 린 : (하하, 정말로 인생에는 어떤 인연이 있을지 알 수가 없군.)

다시 대화.

샌디 : 그건 그렇고... 이 학원은 신기한 것들 뿐이에요.
 샌디 : 특히 자동판매기... 저건 굉장한 발명이네요.
 린 : 하하, 분명히 그렇지.

※클럽하우스의 통로를 통해 식당으로 가서 유우나에게 다가가면 이벤트 발생.

린 : 저건...
 란돌프 : 자, 이 오빠가 쓰는 거다.
 유우나 : 와, 감사합니다. 란디 선배님!
 유우나 : 아, 선배가 아니라 교관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란돌프 : 하하, 수업이나 훈련 같은 게 아니라면 "선배님"으로 괜찮아.
 란돌프 : 그래서, 부활동 선택의 상담이라고 했나?
 유우나 : 네, 다른 반의 아이들과도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정해지질 않아서.
 유우나 :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을려나~~하고 생각은 하는데요.

란돌프 : 아-- 그편이 네 성격에 맞을 듯하네.



란돌프 : 유우(ユウ坊)가 머리를 쓰는 부활동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실감이 나지 않으니.

유우나 : 선배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린 : (유우나와 란돌프 교관님...?)

란돌프 : 여어, 슈바르쳐. 너도 차를 마시러 온 거야?

유우나 : 옛...



린 : 아니요, 돌아가기 전에 잠깐 순찰을 하는 중이라서요.

린 : 잠시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저기,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란돌프 : 하하, 그다지 교관과 제자, 금단의 관계 같은 건 아닌 말이지.

유우나 : 다, 당연하죠.

유우나 : 크흠, 란디---

유우나 : 란돌프 교관님은 저의 “선배”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유우나 : 크로스벨의 경찰학교 시절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어요.

린 : 경찰학교... 그랬었던가.

란돌프 : 워, 귀여운 여동생 정도 위치랄까.

란돌프 :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뭔가의 인과가 겹쳐 이 제2분교에서 재회를 했다는 거지.

린 : ... 그렇군요.

린 : (두 사람 다 크로스벨 출신이고 설마하고는 생각했지만.)



린 : (그렇다면 당연히 유우나도 “그”와 면식이 있을 듯하군...)

유우나 : 후우, 저로선 란디선배님이 담임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유우나 : 나참, 어째서 하필이면 이 사람...(중얼중얼)



린 : 하하, 방해해서 미안해. 나는 슬슬 가보도록 하지.
 린 : (학생 수첩은 나중에 넘기도록 할까.)
 린 : ---맞아, 부활동 선택에 대해서는 사양 말고 상담을 해주길 바라.
 린 : 담임교관이고 아니고를 떠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유우나 : ...후우, 알겠어요. 만약 뭔가 있다면 그렇게요.
 란돌프 : 하하, 유우의 담임이 된 것도 뭔가의 인연이란 거겠지.
 란돌프 : 모처럼 이니까 VII반에서도 충분히 단련시켜 달라고.
 린 : 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유우나와 대화.



유우나 : 후우, 린 교관님도 사람이 좋으랴, 뭐랄까...
 유우나 : 뭐, 뭔가 필요하면 제 쪽에서 말을 걸 테니까요. 그럼 이만.

란돌프와 대화.

란돌프 : 뭐, 이후에도 귀여운 여동생을 잘 부탁해.
 란돌프 : 기백과 근성만은 한 사람 뒀 이상이니 꽤나 단련시킬 보람이 있을 거야.
 유우나 : 란디 선배님---“만”은 빼세요.
 린 : 하하하...

※ 식당 카운터에 있는 지나와 대화. 요리노트와 레시피를 입수.

지나 : 후후, 린 교관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린 : 당신은... 지나씨였던가요.
 린 : 언제나 모두의 점심식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린 : 분명 사시는 곳은 리브스에 있는 여관주점이었죠?
 지나 : 네, <바니스>의 딸이에요.
 지나 : 분교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모집공고가 있어서 흥미가 있길래 신청을 해서 돕고 있는데요.
 지나 : 정말 좋은 분들 뿐이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린 :하하, 그거 다행이네요.



지나 : 덧붙이자면 린 교관님도 점심은 자주 저희 가게를 이용해주시고 계신데...
지나 : 저녁은 어떻게 하시나요?
린 : 저기, 일단 기숙사에선 식사당번이 어느 정도의 인원수분 만큼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린 : 시간에 맞추면 함께 먹을 수 있지만... 늦으면 직접 해먹어야 하네요.
지나 : 그렇군요, 직접 만드시기도 하는군요.
린 : 하하, 그렇다곤 해도 이게 꽤나 번거로운 터라.
린 : 언제나 정해진 메뉴가 되어버리곤 하더군요.
지나 : 으음... 그건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니 좋지 않겠네요.
지나 : 맞아--- 괜찮다면 이걸 받으세요!

- 요리수첩(料理手帳)을 얻었다.-

지나 : 그리고 이거는, 이 학생식당의 [추천요리]레시피예요.

- 동글동글 포테토 샐러드(ごろごろポテトサラダ) 레시피를 입수 -

린 : 식재료까지...

린 : 왠지 죄송하네요.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시다니.

지나 : 후후, 그건 교관님들이 계셔야말로 분교가 있으니까요.

지나 :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요리에 흥미를 가지신다면 기쁠 거예요.

린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죠.

~ [요리작성(料理作成)]에 관해서 ~

레시피와 식재료만 있으면 요리노트(料理ノート)로 요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시피는 여러 가게의 추천 요리를 먹는 것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 메뉴에서 레시피 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습득이 가능합니다.

~독자요리(独自料理)에 관해서 ~

특정 캐릭터가 요리를 만들면 레시피와 다르게 독자요리를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숙련도에 따라 절품요리(絶品料理)나 진묘요리(珍妙料理)가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동료가 늘어나면 반드시 여러 캐릭터로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대화.

지나 : 저는 요리가 손꼽는 특기라서요.

지나 : 여기에서 일을 돕는 것은 낯뿐이지만요...

지나 : 학생들과도 수다를 떨면서 매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지나 : 후후, 린 교관님도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Side Event !!

식당에있는 시드니, 구스타프, 스타크에게 대화.
스타크의 인물 노트 갱신.



스타크 : 응, 수영부는 지금 현재 웨인 레오노라, 나.
이렇게 3인이려나.

시드니 : 과연...레오노라가 참가하고 있다면 수영도 괜찮겠는 걸...

구스타프 : 후후...시드니는 알기가 쉬운 걸.

구스타프 : 흥, 하지만 수영인가... 모처럼이니 나도 해볼까.

스타크 : 하하, 그거 기쁜 소린 걸.

스타크 : 덧붙이자면 내일이라도 시작을 해볼 생각인데
두 사람만 괜찮으면---

린 : (전술과의 시드니랑 구스타프, 그리고 주계과의...)

린 : (그는 분명 [쥬라이 특구]의 출신이었던가.)

린 : (...어쨌든 지금은 방해할 하지 않는 편이 좋겠군.)

다시 대화.

스타크 : 뭐, 아무튼 와서 분위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스타크 : 우리는 언제라도 대환영이고 차근차근 결정하면 될 거야.

시드니와 대화. 시드니의 인물 노트 갱신.



시드니 : 레오노라의 수영복 모습도 버리긴 아깝지만… 아무래도 운동계열의 부활동은 힘들단 말이지~.

시드니 : 하아, 그저 편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들과 사이좋아질 수 있는 부활동을 하고 싶어~.

린 : …;;

구스타프와 대화. 구스타프의 인물 노트 갱신.



구스타프 : 수영은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해볼만한 것 같아.

구스타프 : 흠. 우선은 내일 견학을 하러 가볼까.

※ 그라운드 북동쪽의 격납고(格納庫)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 이벤트 완료 후 티타의 인물노트 갱신.

린 : 기갑병의 격납고… 연구동도 같이 있었던 건가.

린 : 슈밋트 박사님… 발리마르도 안에 놓여져있군.

린 : 그리고 앞에 나열되어 있는 건---

소녀의 목소리 : 으와아아…!



금발의 소녀 : 아, 아야야… 하아, 또 저질렀네…
린 : 괜찮아? 어라, 넌 분명…
금발의 소녀 : 아, 슈바르체 교관님?
금발의 소녀 : 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린 : 하하, 대단한 일도 아닌걸.
린 : 것보다 제대로 얘기한 것은 전에 열차 안, 이후로군?
금발의 소녀 : 아…에헤헤. 그리고 보니 그럴네요.



티타 : 저기, <IX반> 주계과의 티타 랫셀이에요 .
티타 :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슈바르체 교관님.

린 : 응, 내 쪽이야말로.

린 : 그리고 보니 요전의 <소형 요새>에서 네비게이션을 해주던 것도 너였지?

티타 : 저기, 저기. 그 때는 죄송했어요! 그런 곳에 떨어뜨리고 말아서…!

린 : 아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박사님의 탓이었잖아.



린 : 그 후로 2주간 남짓… 제국에서의 생활은 슬슬 익숙해 졌을려나?

티타 : 아, 네. 덕분에요. 반의 모두들도 잘 대해주고요.

티타 : 오늘은 다음주초의 <기갑병교련>의 준비로 조금 바쁘긴 하지만요.

린 : 그런가, 벌써 정비도 해주고 있는 거야?

티타 : 네…! 제국에서 발명된 인간형 유인병기, <기갑병>…!

티타 : 이 학원에도 연습기로서 운용되어지는 건 들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굉장한 것이었을 줄은…!



티타 : 이족보행기계의 연구는 <ZCF>에서도 하고는 있었지만
 설계사상이 전혀 달라서 좋은 공부가 되고 있어요!
 린 : ZCF...리벨에 있는 유명한 공방이었던가.
 린 : 리벨 출신인 것은 들었지만 역시 너도 그 관계자인거야?
 타타 : 아, 네. 그래요.
 티타 : 이 학원에 유학을 결정한 것도 그 연이었달까...
 슈미트의 목소리 : ---흥, 연(縁)은 연이라도 “악연(腐れ縁)”이지만 말야.
 슈미트 박사 : 도면과 공구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뭘 우물쭈물대고 있는 거냐, 나 참.
 티타 : 아우, 죄송해요.
 린 : 슈미트 박사님... “악연”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슈미트 박사 : 흥, 약간 귀찮은 것을 떠맡아 버린 것뿐이다.
 슈미트 : 예전의 “형제 제자”에게서 말야.
 린 : 박사님의 형제 제자라는 것은 그 “세 제자”의...!?
 린 : 그런가, 랫셀이라는 이름... 어딘가에서 들은 기억이 있다고 했더니.



티타 : 에헤헤, 네. “랫셀 박사”는 저의 할아버지예요.
 티타 : 저 자신은 아직 견습이지만요.
 슈미트 박사 : 흥, 그렇군...
 슈미트 박사 : 이 기회에 너의 즉흥력 봐두도록 할까.
 티타 : 후엣...?
 슈미트 박사 : 슈바르쳐. 앞서 기동테스트에서 얻은 세피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테지?
 슈미트 박사 : 그걸 이 애에게 넘겨서 결정회로(퀴츠)를 만들게 해라.
 티타 : 아...
 린 : 그거참 급작스럽네요.
 린 : 그런 소릴 하셔도 그녀 역시 준비가...
 티타 : 아니요, 괜찮아요!
 티타 : 기술자인 이상, 언제라도 간단한 서포트 정도는 해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린 : 그, 그래? 그럼 사양 않고 부탁을 해볼까나.
 티타 : 네, 맡겨만 주세요!
 슈미트 박사 : 흥...



어떠한 퀘츠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방에서 퀘츠를 1개를 만들어주세요.
공방은 타티에게 말을 걸어 [오브먼트를 조정한다(オーブメントを調整する)]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티타와 대화



티타 : 그럼 우선은 퀘츠의 합성을 실행해주세요.
티타 : 아무거나 좋으니 주문해주세요!

※ 퀘츠를 생산 하고 난 후에 이벤트 발생.



티타 : 자요, 린 교관님!

린 : 하하, 고마워.

린 : (이런 곳에서 꽤나 하는 걸... 죠르쥬 선배를 떠올리게 된다랄까.)

슈미트 박사 : 흥, 최저한의 일처리는 할 줄 아는 모양이군.

슈미트 박사 : 슬슬 잡담은 끝이다. 정비로 돌아간다. 제자후보.

티타 : 아, 네----- 그럼 또 뵈요!

린 : 응, 그럼 이만.

린 : (<A•랏셀 박사>슈미트 박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엡스타인 박사의 세 제자 중의 한명인가.)

린 : (이름 정도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손녀딸일 줄이야.)

린 : (슈미트 박사님의 "제자후보"... 장난 아니게 힘들 것 같네.)

린 : (하지만 정규모에 막 도입된 최신 Ver.의 기갑병이 4기나, 인가...)

린 : ... 뭐, 그 문젠 됐고. 모처럼 왔으니 발리마르에게 말이라도 건네고 갈까?

공방에서 [슬롯 개방(スロット開封)]과 [무기개조(武器改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중에 입수한 세피스덩어리(セピス塊)는 상점 메뉴의 [EXCHANGE]로 미라(돈)으로 환금이 가능합니다. 공방에서는 칠속성의 세피스도 환금이 가능합니다만 퀘츠 합성이나 슬롯개방에도 사용이 되니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피스 덩어리는 환금 이외에는 사용여지가 없으므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을 우선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미트 박사와 대화.



슈미트 박사 : 격납고 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잡무는

전부 거의의 제자후보에게 맡겨놓고 있다.

슈미트 박사 : 그 나름대로의 체력은 있는 모양이니 모쪼록 잘 써먹도록 해.

발리마르와 대화.



기신 발리마르 : 흠, 린인가.

기신 발리마르 : 오늘의 수업은 끝난 모양이군?

린 : 응, 그럭저럭 말야.

린 : 꽤나 특색이 짙은 학생들이 많지만 그 만큼 가르칠 보람이 있달까.

기신 발리마르 : 후후... 그거 괜찮은 얘기로군.

기신 발리마르 :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휴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신 발리마르 : 무리해서 쓰러져서는 본말전도이니까 말야.

린 : 하하, 고마워. 발리마르.

기신 발리마르 : 덧붙여 그런 의미로는...

마이스터 후보 티타는 다소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기신 발리마르 : 나 이외의 기갑병의 멘테넌스를 한꺼번에 도맡고 있는 모양인데...

기신 발리마르 : 이대로는 언젠가 몸이 버티질 못하겠지.

기신 발리마르 : 이 격납고에는 적어도 한명 더 마이스터 후보가 필요할 것 같군.

린 : 그렇군... 내 쪽에서도 유의를 해두도록 할게.



Side Event !!

그라운드에서 있는 제시카와 대화.

제시카의 인물노트 갱신.

제시카 : 운동계열의 부활동, 인가...

제시카 : 수영도 괜찮겠지만 모처럼이니 이 그라운드를 활용했으면, 싶는데.

루이제 : 으음, 축사가 없으니 승마는 어려울 거 같고...
루이제 : 마라톤...도 모두가 즐거운 느낌은 아니고~.
제시카 : 그러네...뭔가 없을까.
린 : (그녀들은 --각각 전술과와 주계과에 속해 있는 학생이었던가.)



제시카 : 아, 잿빛의----아니.
루이제 : 후후후, 수고많으세요-. 린 교관님~.
린 : 응, 수고.
린 : 아무래도 부활의 검토를 하고 있던 모양인데 나라도 상관없다면. 상담에 응할 수 있는데?
제시카 : 후후... 고맙습니다.
제시카 : 하지만 이것도 과제에 해당하니까요.
루이제 : 네, 좀 더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볼게요~.
린 : 그런가. 그럼 적어도 막히는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

다시 대화.



제시카 : 이전에 톨즈 본교에선 라크로스부가 있었다는 모양인데...
제시카 : 경험자가 하나도 없어선 제대로 된 활동은 불가능하단 말이지.

루이제와 대화. 루이제의 인물 노트 갱신.



루이제 : 레미페리아라면 스키라던가 스노우보드도 성행했었는데…
 루이제 : …여기서 가능할 리도 없고~.



Side Event !!

재배원(菜園)에 있는 프레디와 대화.
 프레디의 인물노트 갱신.



프레디 : 오옷, 이 무슨 생기가 넘치는 풀이지!
 프레디 : 게다가, 이 흠은…!!
 프레디 : 역시 좋군, 역시 좋아--- 이 리브스라는 토지는!
 린 : (그는 전술과의… 꽤나 독특한 학생이란 인상인데…)
 프레디 : 흠, 누군가 했더니 슈바르체 교관님 아니십니까.
 프레디 : 설마 교관님도 식재료를 찾으러 여기에?
 린 : 식재료…?
 린 : 그러고 보니…저기 자라고 있는 들초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군.
 프레디 : 호오---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린 : 하하, 그 정도까지는.
 린 : (그러고 보니, 산속에서의 수행에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었지.)
 프레디 : 덧붙여... 여기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메뚜기도 있는 모양이려서요.
 프레디 : 말인즉---린 교관님은 곤충식에도 흥미가 있으신가요?
 프레디 : 다음에 만들 테니 부디 한번 드셔보시길!
 린 : 고, 곤충식...!?
 린 : (분명 메뚜기를 조려서 먹는다고 스승님에게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린 : (일단... 학생의 권유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그러니)
 린 : 아, 그래... 기회가 있다면 잘 부탁해.
 프레디 : 후하하---말겨만 주시죠!

다시 대화.



프레디 : 후후훗--슈바르체 교관님이 말이 통하는 분이래 기쁘군요.
 프레디 : 그럼 또 가까운 시기에 눈 뒤집히게 만드는 곤충식의 세계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린 : (대답이 너무 성급했던 건가...?)



Side Event !!

본교사 안뜰(中庭)에 있는 발레리와 대화.
 발레리의 인물 노트 갱신.

 발레리 : ...
 발레리 : 부활동인가... 귀찮네.
 린 : (그녀는 주계과의...)

린 : (게다가 분명 그 노잔브리아주(州)의 출신이었을 터...)

발레리 : 무슨 볼일이죠? 슈바르쳐 교관?



린 : 아, 아아...

린 : 크흠... 혹시 부활동 결정에 고민하고 있나 해서 말야.

린 : 나라도 괜찮으면 상담---

발레리 : ---아니요, 괜찮습니다.

발레리 : 그다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간에
그걸 밝힐 의무는 없고요.

발레리 : 교관으로서 평가를 올리고 싶다면 다른 학생을 알아보세요.

린 : 그럴 생각으로 말을 건네 아닌데 말이지...

린 : ...워, 됐어.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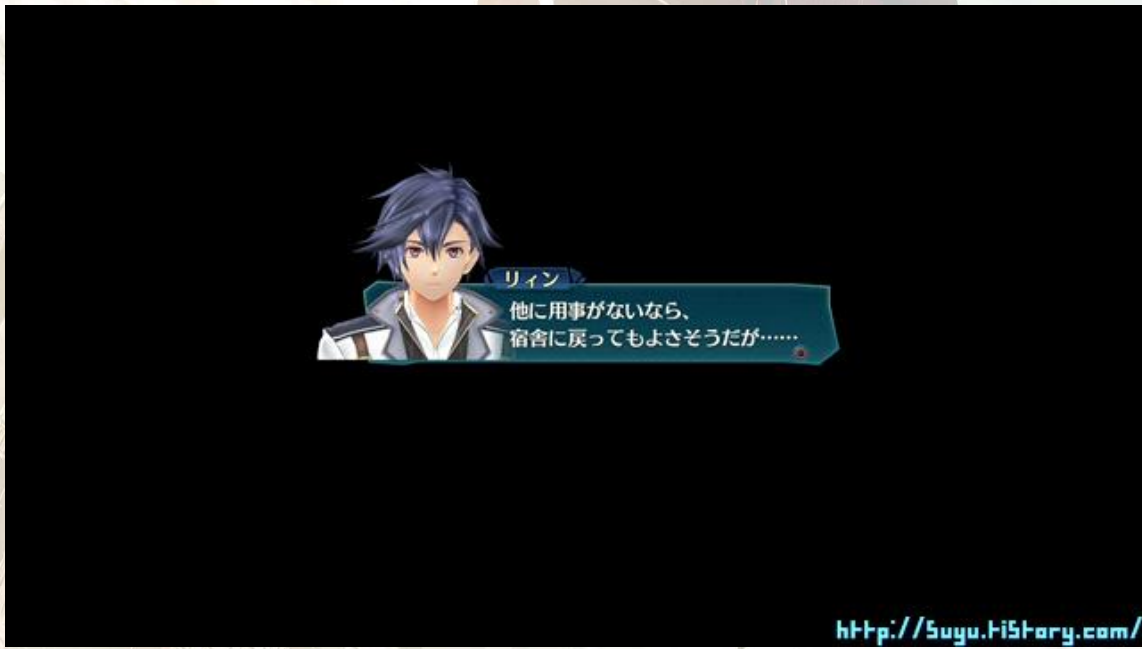
다시 대화.



발레리 : ... 아직 뭔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발레리 : 근처에 있으면 편히 쉬기도 힘드니
떨어져 주셨으면 하는데요...

※ 위의 필수 이벤트 들을 다 보면 이벤트 발생.



リン : 이런... 하교시각이로군.

リン : 다른 용무가 없다면 기숙사에 돌아가는 것도 좋을 듯한데...

방과 후의 산책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엔 학교정문으로 나가 기숙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모든 필수 이벤트를 보았지만 학생들과의 대화 이벤트를 전부 회수 하지 않고 교문을 나설 경우.



リン : (슬슬 하교 시간인가...)

린 : (아직 얘기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슬슬 기숙사로 돌아갈까?)

※ 모든 필수 이벤트를 보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전부 마치고 교문을 나섰을 경우.



린 : (슬슬 하교 시간인가...)

린 : (교사 내 학생들과 이야기도 했으니 슬슬 기숙사로 돌아가 볼까?)

기숙사에 돌아간다(宿舎に戻る)를 선택하면 이벤트 발생.



남자아이의 목소리 : 어라라~~~! 슈바르처 교관님 아니십니까?

린 : 너는----(분명 전술과의...)

금차색 머리의 남자아이 : 일하는 데 수고가 많으시다.

애쉬 : 애쉬 카바이드 VIII반 전술과의 학생이다.
 애쉬 : 웬지 학생들에게 꼼꼼히 말을 건네시던데 꽤~나 일에 열심하심다~?
 애쉬 : 인기절정의 젊은 영웅---<젯빛 기사>님께선.
 린 : ... 어디까지나 막 졸업한 신참 교관이니깐 말야.
 린 : 란돌프 교관에게서 보고는 들었어. 꽤나 높은 신체능력을 갖추었다며?
 린 : 수업이나 교련으로 가르칠 일도 많을 테니 새삼 잘 부탁한다, 애쉬.
 애쉬 : 하... 저야말로.
 애쉬 : 그런데 전부터 당신에게 듣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말임다.



애쉬 : ---커다란 젯빛의 장난감을 타고 다니면서 정부의 개로 일하는 것은 그렇게나 기분이 좋은 모양임다?
 린 : ...으...
 여자아이의 목소리 : 후훗, 실례하겠어요.
 린 : 아...(주계과의 여자 아이였던가.)
 애쉬 : 찻... 아침에 이어서인가.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VIII반의 애쉬씨에 린 교관님이셨군요.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후훗, 재미있는 얘기로 한창 열이 올랐나 봐요?
 애쉬 : 하... 그럼 나는 이만.
 애쉬 : ---주초의 기갑병교련, 즐겁게 기다리도록 하지.
 린 : (기갑병교련...?)
 민트 머리의 여자아이 : 어머니, 설마 방해였던 건가요...?
 린 : 아니, 그렇지 않아.
 린 : 저기, 너는 주계과의---
 유제 : IX과 주계과소속 유제 이글렛이라고 해요.
 유제 : 이미 수업으로 몇 번인가 신세를 졌었는데요...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린 : 응,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린 : 토와 교관님에게서도 얘기는 들었어. 꽤나 성적이 우사한 모양이던데?
 유제 : 후훗, 저 정도의 성적으로 우수하다니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유제 : 실은 저도 교관님의 소문을 여러모로 들었기에...
 유제 :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린 : 그런가... 그런 소문은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데.
 유제 : ...? 아아, <젯빛 기사>라던가 그런 소문이 아니구요.
 유제 : "예전의" VII반 여러분의 얘기가 여동생, 황제 전하 방면의 소문이에요♥

린 : 엷...!?

유제 : 킷킷킷... 그램 이만 가볼게요. 린 교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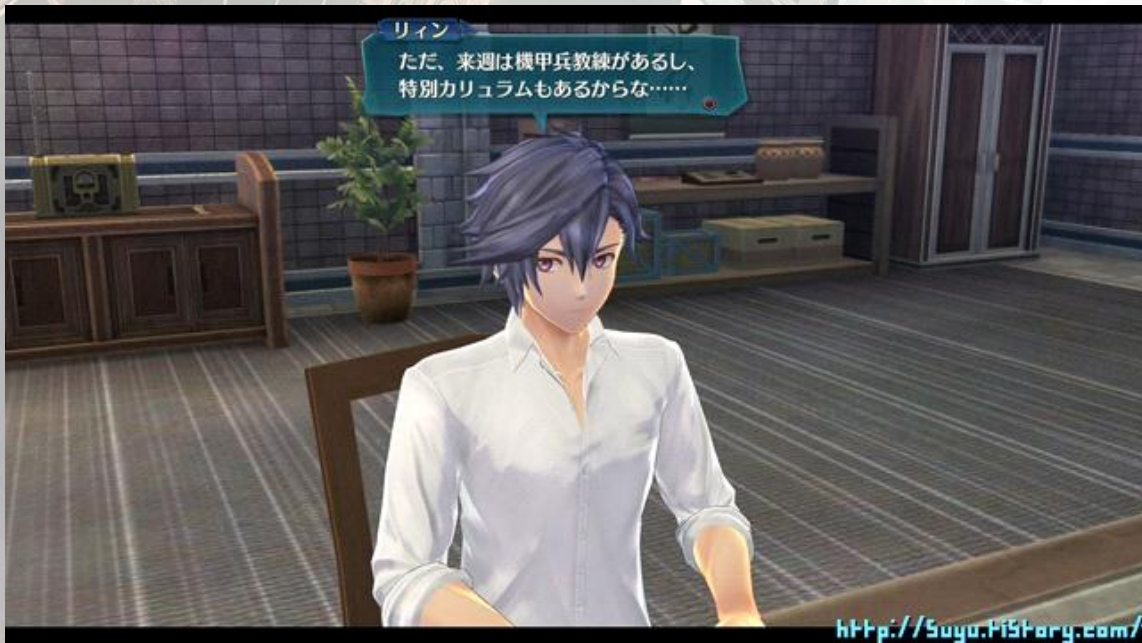


유제 :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몸이긴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린 : (...전술과의 애쉬 카바이드에 주계과의 유제 이글렛인가.)

린 : (VII반이나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군.)

- 제2분교 기숙사 3층 린의 방 -



린 : ---개시부터 2주간. 역사학도 무술 교련도 아직은 순조롭나.

린 : 단지, 다음 주는 기갑병교련이 있고 특별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린 : 준비는 이걸로 됐다 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

린 : ...

린 : (...그러고 보니 세 사람도 이미 돌아와 있을 테지.)

린 : (방과 후는 건네지 못했지만 오늘 안으로 학생수첩을 전해두도록 할까.)

린 : (다른 학생들에 관해서도 부활동의 상담을 들어두어도 좋을 듯하고)

~ [분교 충실도(分校充実度)]에 대해서 ~

분교관계자와의 교류를 높이는 행동을 취하면 분교충실도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의 티이밍에도 충실도를 올리는 이벤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Check Point !!

행동 네비게이션 : VII반 멤버에게 학생수첩을 전하자.
(VII組の学生手帳を渡そう)

- ※ 3층 오렐리아 분교장실의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2층 크루트의 방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2층 유우나, 알티나의 방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1층 남자 목욕탕의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1층 기숙사 식당에 있는 알티나와 대화를 하면 이벤트 발생.
- ※ 3층 린의 방문을 조사후 휴식을 취한다를 선택하면 이벤트 발생.

※ 3층 오렐리아 분교장의 방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여기는... 오렐리아 분교장님의 방인가.)
 린 : (방과 후에도 얘기를 했고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을 듯한데...)
 오렐리아 분교장 : 이 기척은---흠, 슈바르쳐인가.
 오렐리아 분교장 : 그런 곳에 서있을 거라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
 린 : 하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린 : (역시 <황금 나찰>...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군.)
 린 : 헤에... 역시 다른 방과는 달리 넓은 편이네요.
 린 : 그렇다곤 해도 백작가의 당주님이기도 하니 좀 더 호화스러워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그리들 말하지만 제국귀족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실질강건(質実剛健)--- 이정도 사치스러운 정도지.
 오렐리아 분교장 : 그런 의미로 본교의 제1학생 기숙사는 다소 사치가 심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
 오렐리아 분교장 : ---윗보다 방침이 바뀐 지금은 기숙사의 할당도 수정되었다고 하는 듯하지만.
 린 : 네... 그런 듯하더군요.
 린 : ---라는 건 분교장님은 설마...
 오렐리아 분교장 : 흠, 너에겐 아직 말을 하지 않았던가.
 오렐리아 분교장 : 실은 나도 톨즈 본교 출신이라서 말야. 즉 너의 선배라는 거지.
 린 : 그, 그랬었군요.
 린 : (...근데, 톨즈 출신자들은 거물이 많다랄까.)
 린 : (클레아 소령님에 오리발트 황자님, 게다가... “그”도...)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뭐--- 그런 이유로 너는 귀여운 후배이기도 하다는 거지.
 오렐리아 분교장 : 앞으로도 언제든지 맘 편하게 방에 들르도록 해.
 린 : 하하, 고맙습니다.

다시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뭘 숨기겠어, 나도 너와 같은 톨즈 본교 출신이라서 말야.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옛날 얘기라도 들려주도록 하지.



Side Event !!

3층 란돌프의 방을 조사.



린 : 란돌프씨의 방인가 ... 멋대로 들어가는 건 관두자.



Side Event !!

3층 미하일 소령의 방을 조사.



린 : 여기는... 미하일 소령의 방인가.

린 : 언제나 바쁜 모양이고 밤에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Side Event !!

3층 토와의 방에 들어가서 토와와 대화.



토와 : 좋은 저녁이야, 린. 기숙사를 순찰하고 있는 거야?
린 : 네, 그런 셈입니다.
린 : ...것보다 그냥 들어와서 죄송해요.
토와 : 아니, 린이라면 그다지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린 : 하하, 고맙습니다.
린 : 그런데 토와 선배는 내일은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토와 : 그러네. 일단 낮 동안은 학원의 양호실에 있을 예정이려나.
토와 : 만에 하나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해야만 하니까.
린 : 저기, 언제나 죄송하다랄까. 그거라면 제가...
토와 : 응응, 신경 쓰지 마.
토와 : 그것보다 린. 요 2주간 학원과 기숙사를 왕복하기만 했지?
토와 : 모처럼의 기회니까 리브스의 마을 내를 돌아봐야지.
린 : 뭐... 분명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린 : 아직, 이 마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랄까...
토와 : 후후, 그럼 결정이네.
토와 :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양호실로 찾아와.
린 : 토와 선배...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대화.

토와 : 후후, 린도 모처럼이니까 리브스의 마을을
여러모로 보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토와 : 맛있는 가게 같은 것도 많고
분명 좋은 휴식이 될거라고 생각해.

※ 2층에 있는 시드니, 크루트 방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크루트의 방은 여기였지.)

린 : (분명 VIII반의 남자아이와 같은 방이었을 터...)

남자 아이의 목소리 : 네, 네~. 지금 나갑니다요.

시드니 : 뭐야, 슈바르체 교관님이네.

린 : 너는 시드니였었던가. 크루트는 돌아와 있는 건가?

시드니 : 아아,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어이, 호출이야, 도련님!

크루트의 목소리 : 후우, 도련님 호칭은 그만해. ... 지금 나가겠습니다.

크루트 : 그래서 무슨 용무죠? 이런 한밤중에.

린 : 아아, 오늘 중에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말야.



- 크루트에게 학생수첩을 건넸다 -

크루트 : 학생수첩... 그리고 보니 VII반은 늦어졌었죠.

크루트 : 일부러 고맙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건네주었으면 수고는 덜었던 게 아닌지?

린 : 조금 타이밍이 그래서.

린 : 것보다 막 돌아왔다는 건 그 후로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가?

린 :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해.

크루트 :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크루트 : ...교관님이야말로 좀 더 몰두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크루트 : 바쁘신 것은 알지만 모처럼의 <팔엽>의 검. 녹슬게 해서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린 : ...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지.

린 : 분명 바쁘긴 하지만 어떻게든 내 나름의 시간을 찾아야겠지.

린 : 한밤중에 미안했어. 내일 자유행동일도 열심히 해주길 바라.

크루트 : 네, 그럼.

린 : 남은 것은 유우나와 알티나로군.

린 : 두 사람의 방은 반대편이었지. 가보자.

※ 유우나와 알티나의 방문을 조사.



린 : (유우나와 알티나의 방... 여기였었지.)

유우나 : ...응, 이걸로 괜찮을까나.

유우나 : 그 애들, 외로워서 울거나 하진 않으면 좋을 텐데--

린의 목소리 : 유우나, 알티나, 있어?

유우나 : 이, 이 목소리는...

유우나 : 후우... 네, 지금 나갈게요.

린 : 어라, 알티나는 없는 건가? 두 사람에게 불일이 있어서 왔는데.

유우나 : 그 아이라면 방금 획-하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유우나 : ...무슨 불일이신가요?

린 : 아아, 잠시 건네줄 것이 있어서.

- 유우나에게 학생수첩을 건넸다 -

유우나 : 아아, 그러고 보니 건네주는 거 늦는다고 했었죠.
유우나 : 하지만 일부러 한밤중에 건네주지 않고 내일이라도 줘도 괜찮았던 게 아닌가요?



유우나 : 남성교관이 한밤중에 여자아이의 방에 방문하는 건
미묘하게 좋지 않은 느낌이랄까.
린 : 아니, 내일은 자유행동일이고 오늘 중으로 건네는 편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린 : 듣고 보니 분명 배려가 부족했었던 걸지도 모르겠군.
린 : 뭔가 편지 같은 거라도 쓰고 있었던 거지? 미안해, 방해를 해서.
유우나 : 헤에... 어떻게 그걸...
유우나 : 벼, 별로... 수업의 복습을 하고 있었던 거뿐이니까요.
유우나 : 실내수업도 제국인에게 질 생각이 없으니까요!
린 : ? 뭐, 열심히라니 다행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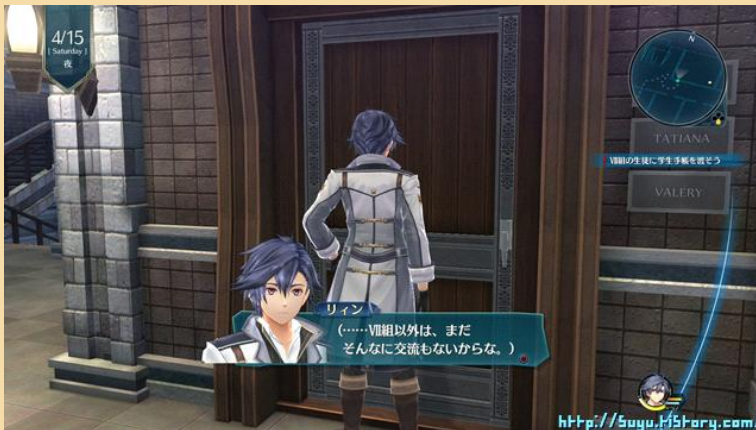


린 : 부활동 찾기도 있어서 내일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길 바라.
 유우나 : 말씀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예요.
 알티나 : 저기, 뭐하면 알티나의 수첩, 제가 맡아드려도 괜찮은데요?
 린 : 아니, 일단 이것도 일이니까. 이대로 직접 전해줄게.
 린 : 고마워, 방해를 했군. 잘 자, 유우나.
 유우나 : 아, 저기...
 유우나 : ...바쁘신 중에 일부러 고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린 : 아...
 린 : 하하... 이래저래도 마음씨가 좋은 아이로군.
 린 : 자 그럼, 마지막은 알티나로군. 1층에 내려간 것 같은데...
 린 : 잠시 찾으러 가볼까.



Side Event !!

2층의 학생들 방을 조사.



린 : (...VII반 이외에는 아직 그렇게 교류가 없으니.)
 린 : (방문하는 것은 그만두자.)



Side Event !!

2층 주계과 티타와 유제의 방을 조사.



린 : (주계과의 뮤제와 티타, 인가...)
 린 : (뭐랄까, 어느 반이던 개성적인 학생이 많은 편이군.)



Side Event !!

2층 애쉬와 구스타프의 방을 조사.



린 : (애쉬인가... 꽤나 성격이 있는 학생이랄까...)
 린 : (뭐, 너무 신경을 써도 별 수 없으려나.)



Side Event !!

기숙사 2층 자습실에 있는 타치아나와 대화.

타치아나 : 아무래도 모두들. 이미 부활동을 결정한 사람도 많은 모양이네요…



타치아나 : 저, 저도 생각한 것은 있긴 한데요…

린 : 설마 부활동을 할 동료들 찾고 있는 거야?

린 : 나라도 상관없다면 상담을 들어줄게.

타치아나 : 고, 감사합니다.

타치아나 : 하, 하지만. 내일도 있으니 어떻게든 스스로 힘내볼게요.

린 : 그런가, 좋은 마음가짐이네.

다시 대화.

타치아나 : 그, 그럴다곤 해도 여자들은 거의 정해졌다는 것 같은…

타치아나 : 그, 그러면 남자에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지 않으면…!



Side Event !!

1층 응접실에 있는 뮤제, 마야와 대화.



유제 : 그럼 마야씨. 그 수순으로 괜찮은거죠?
 마야 : 네, 문제없어요. 내일은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유제 : 후후,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린 : (흠, 뭔가 말을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린 : 린 교관님...
 유제 : 후후, 엇들으시는 건가요?
 린 : 미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린 : 덧붙이자면 부활동의 얘기를 하고 있던 거지?
 순조로운 거 같아 다행이야.
 유제 : 네, 이것도 린 교관님의 지도 덕분이에요♥
 린 : 아니, 아직 수업으로 몇 번인가 가르친 것뿐인데...
 린 : (그녀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미묘하게 말리는 듯한 느낌이군.)

유제와 대화.



유제 : 내일은 학원 내에서 활동할 생각이므로
 괜찮으시면 보러 와주세요.
 유제 : 타이밍이 좋으면 대접해드릴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린 : 아, 그래...(워하는 부활동이지?...)

마야와 대화.



마야 : 자유행동일, 그리고 부활동... 내일은 유익한 날이 될 듯하네요.



Side Event !!

기숙사 내의 단련장에 있는 웨인과 대화.



웨인 : 그럼... 오늘도 근육의 피로 풀어보도록 할까.

웨인 : 그렇다곤 해도, 내일은 부활동도 있으니
적당히 해두는 편이 좋을 듯한데...

웨인 : 하지만, 저기 있는 것은 주계과의 카이리인가...

웨인 : 설마 그도 근육단련에 흥미가...?

카이리와 대화.



카이리 : 동방의 문화로 남자를 갈고 닦는다, 인가...

카이리 : 아무튼 속는 셈치고 해볼 수밖에 없나.

다시 대화.

카이리 : 그건 그렇고 트레이닝용 기구가
이렇게 충실히 갖춰져있다니...

카이리 : 이걸로 단련하면 나도 훌륭한 제국남성이...



Side Event !!

※ 여성 욕탕 앞에 있는 루이제와 대화.
루이제의 인물 노트 갱신. ①항목 추가. ※



루이제 : 우후후, 역시 목욕은 기분이 좋네요-.
루이제 : 란돌프 교관님은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건가요~?
린 : 라, 란돌프 교관?
루이제 : 에엣, 아니신가요?
루이제 : 물끄럼~...
루이제 : 아-, 잘 보니 린 교관님이시잖아요~.
루이제 : 정말, 놀라키지 말아주세요-.
린 : 아니, 란돌프 교관님과 착각하는 쪽이 더 놀랍다고 할까...
린 : 그러고 보니 너는 평소 안경을 쓰고 있었지?
루이제 : 네~. 하지만 쉴 때에는 빼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루이제 : 사물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면 어깨가 피곤하다랄까~...
루이제 : 린 교관님도 그러신 거죠-?
린 : 내 경우는 입장 상, 쓴다고 할까...
린 : 그건 아무래도 좋고 안경 없이도 제대로 보이는 거야?
루이제 : 우후후, 물론이에요-.
루이제 :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 사물은 쉽사리 착각할 리가 없고요-.
린 : 으음...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데.

다시 대화.

루이제 : 가끔은 사물을 향해 대화를 건 적도 있긴 하지만...
루이제 : 어깨가 결리는 것보단 낫겠죠~.

※ 알티나를 찾기 전에 1층 남자 목욕탕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이런, 그리고 보니 여기는 남자 목욕탕이었지.)
린 :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있는데도 꽤나 넓었는데...)
린 : (...마침 좋은 타이밍이고 약간 땀을 빼둘까?)

욕탕에 들어가 땀을 흘린다(風呂に入って汗を流す)를 선택.

린 : 후우...웬지 사치하는 기분이랄까...
린 : 유미르(고향)같은 온천이 아니라 우물물을 데워서 쓰는 모양인데...
린 : ...설마 학원의 기숙사에 이렇게 훌륭한 목욕탕이 있을 줄은...
청년의 목소리 : 하하, 동감이야.
린 : 아아, 란돌프 교관님.
란돌프 : 여어, 슈바르쳐. 쉬는데 방해했군, 함께 해도 괜찮을까?
린 : 네, 물론이죠.(헌데 꽤 큰 체격이로군...)
란돌프 : 후우, 하지만 막 새로 지은 학원도 그렇고 이런 목욕탕까지 있는 기숙사도 그렇고...
란돌프 : 역시 제국은 호화스럽단 말이지.
린 : 아니, 이 기숙사가 특별한 거라 생각해요.
린 : 제가 다녔던 톨즈 본교의 기숙사도 이런 훌륭한 목욕탕은 없었고요.
린 : ...워 올해 들어서 새로 증개축이 있었다는 것 같지만요.
란돌프 : 흠...?
란돌프 : 헌데 너, 역시나 단련된 몸이긴 한데...
란돌프 : 가슴 부분에 꽤나 큰 상처가 있는 걸?
린 : 아아...
린 : ...언제 상처를 입은 건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오랜 상처예요.
린 : 지금에선 아픔 같은 것도 없고.
란돌프 : 헤에...?
란돌프 : 뭐, 그러고 보면 나도 남 말을 할 입장은 아니군.
린 : 하하...그러네요.
린 : 뭐랄까, 단련되어진 체형도 그렇고 영광의 상처라는 느낌이네요.
란돌프 : 뭐, "전직 용병"이니까 말야.

린 : ...그건...

란돌프 : 하하, 미안. 약간 매너 위반이었다.

란돌프 : 하지만 어차피 알고는 있잖아? 네 입장이라면 내 경력 정도는.

린 : ...네, 부정은 않겠습니다.

린 : 정보국에서 돌리는 파일정도라 자세한 부분은 맹세코 알지 못하지만요.

란돌프 : 그런가... 과연.



란돌프 :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뭐하고. 슬슬 나가볼까나.

란돌프 : 아아, 그럼 저도.

란돌프 : 후우, 좋은 목욕이었어.

란돌프 : 발아, 슈바르쳐. 내가 쓰는 거야.



- 커피 우유를 얻었다. -

린 : 아...

란돌프 : 냉장고에 넣었던 거라 꽤나 차갑지?

란돌프 : 쓸데없는 소리를 한 사죄야. 받아둬.

린 : ... 알겠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란돌프 : 하하, 그럼 이만.

-목욕탕에 들어간 것으로 린의 CP가 100상승 -

밤의 타이밍, 또는 자유행동일 때에는 시간대별로 1회만 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번 원가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린이나 등장캐릭터의 CP가 100상승합니다.

※ 기숙사 1층 식당에 있는 알티나와 대화.



알티나 : ...후우...

린 : 아아, 여기 있었던 건가.

알티나 : ...린 교관님. 무슨 불일이신가요?

린 : 응, 알티나에게 건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알티나에게 학생수첩을 건넸다. -

알티나 : 학생수첩... 분명히 받았습시다.

알티나 : ...꽤나 적을 부분이 많은 듯한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린 : 아아, 빈 페이지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린 : 수업의 메모를 해두거나. 부활동의 스케줄을 적거나 일기 대신으로도 쓸 수도 있고 말야.

린 : 뭐, 자신 나름대로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될 거야.

알티나 : 자신 나름대로...

린 : ...왜 그래?

알티나 : 아니요... 단지 조금 지쳤어요.

알티나 : 교육기관이란 건 이렇게나 일상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인가 하고…

알티나 : 임무 수행하고 있던 때가 오히려 편했던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린 : …하하, 그런가.

린 : 방과 후에도 말했지만 내일 부활동 결정에 대해서서 “상당”은 들어 줄 수가 있어.

린 : 여차하면 도와줄 테니까 조금해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로 찾아봐.

알티나 : 자신의 페이스로…

알티나 : …후우, 잘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린 : 이걸로 학생수첩은 전부 건넸구나.

린 : 너무 늦지 않게 방에 돌아가서 쉬자.



Side Event !!

기숙사 1층 식당 내에 있는 파블로와 대화.



파블로 : 크으, 설마 철도부의 설임에 이토록 애를 먹을 줄은…!
파블로 : 그 외에 말을 건넨만한 남자는…

다시 대화.

파블로 : 애쉬는… 학원에서 말을 걸었지만 심하게 뿌리쳤고 말여.
파블로 : 그 외에 말을 건넨만한 남자는…



Side Event !!

기숙사 식당에 있는 애쉬와 대화.



애쉬 : 이거, 이거- 영웅님아니심까.
린 : 잡지를 읽고 있는 건가…
린 : 아니, 이 책은…
애쉬 : 보시는 대로 그라비아잡지임다. 뭔가 문제라도?
린 : 아니, 별로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린 : 적어도 자기 방에 가서 보는 게 어때?
애쉬 : 과연, 주변에 있는 꼬맹이들에게 신경을 쓰란 말임까.
애쉬 : 역시 기사님께선 신사시군요~.
린 : 후우~, 뭐 됐어.
린 : 것보다 부활동은 어때? 실은 벌써 정해두기라도 한 건가?
애쉬 : 아~… 그것에 관해선 검토 중이랄까.
애쉬 : 뭐, 걱정 안하셔도 학생회는 할 생각이 없슴다.
애쉬 : 그럼, 쉬지 말임다.
린 : 뭐, 너무 방새지 말도록 해.

다시 대화.

애쉬 : 뭐, 걱정 안하셔도 학생회는 할 생각이 없슴다.
애쉬 : 그럼, 쉬지 말임다.



Side Event !!

기숙사 1층 식당 주방에 있는 티타, 샌디와 대화.



샌디 :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티타!
티타 : 에헤헤, 저야말로. 샌디씨.
린 : 어라, 설마 부활동에 관한 이야기인가?
샌디 : 네, 지금 막 [요리연구회]를 발족한 참이에요!
린 : 헤에, 요리연구회인가...
린 : (니콜라스 선배, 마르가리타, 밀리엄의 조리부를 떠올리게 되는 걸.)
린 : 그리고 보니 요 2주간, 두 사람은 술선해서 기숙사의 식사당번을 맡아주었던거지.
린 : 어째서 그렇게 요리를 잘 하는 거지?
샌디 : 저는 집이 여관주점을 하고 있기에 때문이에요!
티타 : 저기, 저의 경우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자주 집을 비우셔서.
샌디 : 후후, 티타에겐 그 외에도 이유가 있을듯한데 말야.
샌디 :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였던가~♪
티타 : 저, 정말. 샌디씨는.
린 : 하하, 두 사람은 벌써부터 꽤나 사이가 좋군.
린 : 어쨌건 부활동을 결정해서 다행이야.
린 : 이후의 활동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지.
샌디 : 네, 맡겨만 주세요!
티타 : 저기, 힘내겠습니다!

티타와 대화.



티타 : 샌디씨의 요리는 정말 맛있고 웬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티타 : 에헤헤, 제대로 배워둬야지.

샌디와 대화.



샌디 : 요리는 평소에도 하고 있지만 부활동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샌디 : 북방계에 동방계 놀드 지방의 요리도 시험해 보고 싶고...
샌디 : 티타에게서 리벨 요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물어두지 않으면!



Side Event !!

기숙사 식당에 있는 레오노라, 제시카와 대화.



레오노라 : 흠, 아무래도 결정한 모양이네?
 제시카 : 응, 내일 가볍게 시험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제시카 : 수영 쪽은 인원수는 모일 거 같아?
 레오노라 : 응, 이쪽은 벌써부터 동지가--
 제시카 : 어라...
 레오노라 : 린 교관님인가, 수고하시네.
 린 : 이런, 방해해서 미안하군.
 린 :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활동은 정한 모양이군?
 제시카 : 네, 덕분에요.
 레오노라 : 곧장 내일부터 활동을 할 테니까 말이지.
 뭐하면 보러 오겠어?
 린 : 그래, 시간이 있다면 꼭 보러 가볼 셈이야.
 린 : 어찌됐건 부활동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경험이 될 테지.
 린 : 일단 오늘 밤은 너무 늦잠자지 않도록 해.
 레오노라 : 하하, OK.
 제시카 : 마찬가지로. 명심하겠습니다.

제시카와 대화.



제시카 : 교관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은
 가급적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레오노라와 대화.



레오노라 : 돌도 없는 경험이 된다, 인가.
린 교관님도 좋은 소릴 하는 걸.
레오노라 : 뭐, 내일은 모쪼록 열심히 해볼 거야.



Side Event !!

목욕탕의 이벤트 후, 1층 게시판에 있는 란돌프와 대화.



란돌프 : 자 그럼, 목욕탕도 들어갔다 왔고 남은 건 자는 것뿐이로군.
란돌프 : 하지만 내일은 자유행동일인가---
가끔은 밤을 새서 노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군.

※ 모든 이벤트를 보았으면 3층 린의 방문을 조사.

린 : (학생수첩도 다 건넸고, 오늘의 일은 이걸로 끝이군.)

린 : (슬슬 방으로 돌아가서 쉴까?)



방에 돌아가서 쉰다(部屋に戻って休む) 선택.



린 : 이 착신음은...?(들어본 적이 없는 음인데.)

린 : (이 색은... 통화착신이 아닌 모양이네.)

린 : (그렇다는 건 도력 통신을 경유해 파일이 보내지는 건가?)

린 : ...응? 뭐지, 이 화면은---

린 : ROUND OF SEVEN... "VII의 고리(린:輪;りん)"...?

청년의 목소리 : ---여보세요, 린? 제대로 연결된 건가?

린 : 그, 그 목소리는...

청년의 목소리 : 아하하, 다행이야. 제대로 연결된 모양이네.

청년의 목소리 : 잠시 기다려. 지금 화면을 띄울 테니까.



린 : 엘리엇---!

엘리엇 : 린, 오랜만이야. 전월에 통화로 얘기한 이후만인가?

엘리엇 : 얼굴을 보는 건 4개월만이지만.

린 : 응, 그 정도일 거야...

린 : ---것보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영상은!?

엘리엇 : 후훗, 사실을 말하자면 오리발트 전하의 배려야.

엘리엇 : 린도 ARCUS II를 전하에게서 건네받았지?

엘리엇 : 그것들에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이란 것이 들어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래.

린 : 그런 기능이... 내 얼굴도 그 쪽에 비추고 있는 거야?

엘리엇 : 응, 잘 보여. 설마 또 키가 큰 거야?

엘리엇 : 아, 그러고 보니 생일도 가깝지 않았던가?

린 : 응, 다음 달인데... 하핫...

엘리엇 : 후훗...

엘리엇 : ---졸업 축하해, 린.

엘리엇 : 여러모로 어수선했던 거 같던데 무사히 취임을 한 모양이네.

린 : 응, 덕분에 말야.

린 : 엘리엇은 저번달초에 음악원을 졸업했다고 했지.

린 : 전에 말했던 데뷔를 겸한 순업여행(巡業旅行)은 벌써 시작한 거야?

엘리엇 : 응, 요번달 초부터 말야.

엘리엇 : 사실은 린하고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엘리엇 : 아, 마키아스와도 함께 말이지.

린 : 그쪽도 정치학원을 졸업하면 곧장 현지연수(實地研修)라고 했던가.

린 : <사법감찰원>... 꽤나 힘들고 바쁜 곳에 들어갔군.

엘리엇 : 응, 마키아스다운 선택이라고 할까...

엘리엇 : 제도지사인 아버지랑 미묘하게 대립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조금 걱정이야.

린 : 그 녀석이라면 관찮을 테지. 우리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린 : 하지만, 다른 모두와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걸.

린 : 가능하면 직접--- "그 날의 약속"을 위해서도.

엘리엇 : 린...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린 : 당연하잖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린 : 톨즈 제2분교... 여러 의미로 매우 바쁜 곳이지만 웬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 일을 떠올리니까.

엘리엇 : 후후, 그렇군.

엘리엇 : 그리고 보니 토와 회장님도 같은 교관직으로 들어갔었지?

엘리엇 : 그 외에도 의외의 얼굴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린 : 응, 들어봐. 실은 분교장님부터 해서---

- 1206년 4월 15일 종료 -